

# 한국이구스, 첨단 지식산업 도시 송도 신사옥으로 이전

**세계적인 규모의 플라스틱 베어링, 체인 및 케이블 제조기업인 독일 이구스의  
한국 지사가 송도에 새로이 등지를 튼다**

(주)한국이구스(대표 김종언)는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내 9498㎡ 규모 대지 신사옥 입주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독일 이구스 본사의 Artur Peplinski 부사장 공동주관으로 미화 1.3천만불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독일 쾰른에 위치한 히든챔피언 igus GmbH의 한국 지사인 한국이구스는, 이구스 그룹의 아시아 허브로의 성장을 목표로 이번 사옥 이전을 계획했다.

2001년 국내 지사를 세운 한국이구스는 창립 17년이 지난 현재, 임직원 수 20배, 매출 150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공장의 건립은 물론, 앞으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송도 신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한국이구스가 새롭게 등지를 틀 송도 신사옥은 연면적 6941.97㎡로, 사무동 3층과 공장 2층 규모의 신축 건물이다. 이를 통해 국내 현지 생산이 가능해짐은 물론, R&D센터를 신축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로봇 자동화 기술 및 스마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편의 시설을 고려한 것도 특징이다. 건물 내에 사내식당과 휴게실을 위치시켜 직원의 부담을 덜고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천시의 인재를 적극 유치 할 계획이다.

한국이구스 김종언 대표는 “이번 사옥 이전을 통해 R&D센터 신축 및 생산 능력 확대로 아시아 지역의 연구 개발 및 수출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IFEZ와 계약을 마친 한국이구스의 송도 신사옥은 2019년 3월 착공을 시작해 2019년 말 입주 예정이다.

캡션:



### 송도 신사옥 조감도

R&D 센터 신축 및 생산 시설을 확보한 한국이구스 송도 신사옥 조감도  
(출처: 한국이구스)

한국 이구스

언론 홍보 담당  
이재원

Tel 032 821 2925

Fax 032 821 2913

Mobile 010 3706 2910

Email : jaelee@igus.kr

<http://www.igus.kr>

<http://www.facebook.com/iguskr>

<http://twitter.com/iguskr>

igus® plastics for longer life®

한국 이구스

igus는 독일 쾰른에 위치한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6개  
지사 및 판매 센터를 확보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igus제품은 일반 금속 기계 부품들과는 달리 igus만의  
특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로 e체인, 케이블,  
베어링이 주요 품목이며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시험과  
검사를 거쳐 품질이 입증된 제품만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200가지의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와 함께 업계  
최대의 실험 설비 및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량, 저소음, 무보수, 무급유, 비용 감소 등 차별화 된 수  
많은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igus", "chainflex", "CFRIP", "conprotect", "CTD", "drylin", "dry-tech", "dryspin", "easy chain", "e-chain", "e-chain systems", "e-ketten", "e-kettensysteme", "e-skin", "energy chain", "energy chain systems", "flizz", "iglide", "iglidur", "igubal", "manus", "motion plastics", "pikchain", "readychain", "readycable", "speedigus", "triflex", "twisterchain", "plastics for longer life", "robolink", "xiros", "vector" 는 igus® GmbH 및 igus® Inc.의 등록 상표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